

레위기

■ 제사장의 직무 (240703)

1. 첫 제사장들의 위임식(레 8장)

1.1. 출애굽과 금송아지 사건

- 1.1.1. 하나님의 목적: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() 백성의 창조(출 19:5-6)
- 1.1.2. 금송아지 사건의 발생(레 32장)
- 1.1.3. 속죄의 수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제도가 필요
- 1.1.4. 이를 위하여 성막과 () 제도가 마련

1.2. 제사장의 위임식: 레 1-7장에서 마련된 제사를 실행에 옮길 제사장들을 준비

1.2.1. 회중을 모음(레 8:1-5)

- A. 회막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"온 회중"이 입회
- B. "온 회중"은 전체 백성이 아닌, 백성들의 대표
- C. 청동 번제단을 중심으로 둘러 서서 위임식의 광경을 지켜봄

1.2.2. 제사장들의 예복(레 8:6-9; 출 28, 29장)

- A. 예복/제복은 사람의 개성보다는 ()에 주의를 집중시킴(군복, 경찰복, 의사 가운 등)
- B.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김(레 8:6)
- C. 예복을 착용: 속옷 → 띠 → 겹옷 → 에봇 → 흉패 → 우림과 둠뎀(주사위?)
- D. 관과 금패: "여호와께 성결"(출 28:36) →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으로서, ()의 옷을 입음(골 3:12)

1.2.3. 기름부음(레 8:10-13)

- A.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름
- B. 이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(시 133:2) → 거룩하게 함(레 8:12)
- C. 구약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()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언급됨(사 61:1)

1.2.4.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(레 8:14-17)

- A. 성소는 제사장 자신이 가져온 더러움에서 정결해져야 함
- B. 수송아지를 가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함
- C. 모세가 피를 휘장과 향단이 아니라, 번제단 뿔에만 바름(레 8:15)
- D. 제사장이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!

1.2.5.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(레 8:18-21)

1.2.6. 제사장직 위임의 화목제(레 8:22-29)

- A. 모세가 위임식의 솟앙을 잡아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름
- B. 오른쪽 귓부리,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름(레 8:23-24) → 거룩한 ()와 ()과 ()!
- C.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, 각종 기름과 콩팥 등은 태움
- D. 제사장 몫의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(8:25), 가슴살은 모세에게(8:29)!
- E.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

1.2.7. 회막 내에서 일주일 동안 체류함 → 죄와 부정의 제거를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됨(성화?)

2. 첫 번째로 드러진 제사(레 9장)

2.1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이후 아론이 첫 제사를 집도

2.1.1.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장로들,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

2.1.2. 속죄제, 번제, 화목제와 소제를 드림 → 5대 제사 중 속건제만 제외!

2.2. 제사를 드리는 목적

2.2.1. "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!"(레 9:4)

2.2.2. "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!"(레 9:6)

2.2.3.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의 ()에 달린 것!

2.3. 하나님께서 제사를 열납하심(레 9:22-24)

2.3.1. 아론이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(속죄제, 번제, 화목제)를 드린 후

2.3.2. 청동 놋제단 위에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()함(레 9:22; 민 6:23-24)

2.3.3. 이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감(레 9:23)

A. 아마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

B.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함

2.3.4.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남

A.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 번 백성을 축복함

B. 이들의 확신에 찬 선포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것!

C. 이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에 떨어짐(레 9:24; cf. 삿 13:20; 대하 7:1; 왕상 18:38)

D. 백성들이 경외감에 압도되어 소리 지르며, 엎드려짐

3. 첫 번째로 실패한 제사(레 10장)

3.1.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

3.1.1.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, "()"(strange) 불로 분향(레 10:1)

3.1.2. 향단의 불은 ()의 불을 사용(레 16:12) → 하나님의 규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

3.1.3.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이들을 태워죽임

3.1.4.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심(레 10:6)!

3.2. 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(레 10:3)

3.2.1.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

3.2.2. 원전 방사선은 단 한 번의 피폭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

3.2.3. 신약성경 ()와 ()의 사건과 유사(행 5:5, 10; cf. 수 21:16; 왕상 13:24)

3.2.4. 칼빈—"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안다면

[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]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."

3.3. 제사장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항(레 10:12-15)

3.3.1.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심 → 분별과 가르침을 위해!

3.3.2.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제물과 그것을 먹는 방식과 장소

3.3.3. 이와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

A. 피가 성소 안(휘장과 향단)에서 사용되면 속죄제물은 모두 불태워짐(레 4:11-12)

B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물의 피와 기름 등을 제외한 부분은 제사장이 먹음(레 10:18; 6:26)

C.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먹어야 할 제물까지 모두 태워버림(레 10:16)

D. 하지만 앞선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을 ()으로 섬기다가 발생한 실수는 수용됨(레 10:20)